

#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 대비책은 있는가?

자격사시장에 자본진입 허용 등 대변동 예고, 업계 혁신으로 지지대부터 세워야

최인수 | 법무사(수원)

## 글로벌시대 대응 위해 전문자격사시장 완전개방

정부는 최근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전문자격사제도의 선진화 방안을 내놓고, 전문자격사 관련 부처들과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T/F'를 구성, 범정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또한 T/F에서 마련한 개선방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2009년 하반기경 「전문자격사제도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거나 또는 전문자격사 관련 개별법의 개정을 검토할 예정에 있다.

이를 위해 전문자격사 서비스관련 해외제도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도출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정책연구용역을 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전문자격사가 아닌 일반인들에겐 앞으로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변호사나 법무사 의사, 약사 등의 전문자격사를 고용해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살펴보기로 한다.

정부가 선진적이지 못하다고 파악하고 있는 현재의 전문자격사제도의 모습은 대개 이런 것이다. ① 서비스에 대한 진입·영업규제의 상존, ② 전문자격사 업종간, 자연인·법인간 불합리한 규제의 상존, ③ 과도한 업무영역규제 및 타법인등에 대한 투자의 제한, ④ 요율이 공개되지 않는 등 서비스에서 소비자

후생 도외시, ⑤ 대형화·전문화 미흡, ⑥ 전문자격사 단체의 가입강제 등 비복수화 등이다.

이러한 전문자격사제도로는 글로벌시대를 따른 개방에 대응하기는 역부족일 뿐더러 국민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기대하기도 곤란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위와 같은 후진적인 시스템을 크게 세 가지 점에서 선진화하겠다고 한다.

첫째는 자격사 시장에 자본의 진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전문적인 서비스만 전문자격사가 시행한다면 비전문자격사의 영업을 금지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 따라서 누구나 자본의 투입을 통해 전문자격사를 고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고, 또한 다양한 자본 및 경영참여를 통하여 서비스기업의 전문화·대형화를 이루고 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업장 설립의 규제를 푸는 것이다. 자격사법인뿐만 아니라 개별 자격사 역시 그 사업장을 하나로 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능력 있는 전문자격사가 다른 전문자격사를 고용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설립을 하나로 제한하는 규제를 풀어야한다는 생각이다.

세 번째는 복수의 전문자격사단체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의 단수 단체설립과 가입강제는 전문자격사의 결사와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복수 단체설립을 허용하고 단체의 임의가

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대형화·전문화? 그럴 만한 준비도 시간도 없다

부끄럽게도 대내외의 여러 도전에 대하여 우리 업계의 준비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9월 18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자격사 선진화방안에 대하여 이를 입법화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하겠다”고 선포한 바 있고, 변호사단체 역시 강한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대부분의 자격사단체가 정부의 선진화 방안에 반대하리라고 추론되지만 우리 업계가 단체 차원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는 필자 역시 알지 못한다.

필자의 생각에는 우리 업계의 선진화 정도는 다른 단체에 미치지 못하고 대형화·전문화나 자본의 집중 역시 못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 업계는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여야 하겠지만, 과연 현실이 그런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살고 있는 한 어떤 개인이나 단체, 설사 국가조차도 자본의 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고, 가장 선진화된 시스템은 가장 자본주의적이란 주장도 이 시대에는 타당한 주장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수용한다면, 결국 자본의 힘에서 벗어나 조금의 편안함이라도 향유하려면 그나마 어떤 종류의 무기라도 손에 쥐고 있어야 할 텐데 우리가 가진 무기란 과연 무엇일까 궁금하다.

정부의 현실인식과 방안에 대해서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 또는 사안에 따라 찬·반을 논할 수 있겠지만, 이는 지면관계상 생략하고 우선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준비도 시간도 없다”는 궁색한 논리와 생존

권의 문제라도 들어 반대의사를 표해 두는 것으로 하고, 대신 간략히 우리 업계를 돌아보는 것으로 정리하기로 한다.

첫째, 정부가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전문자격사제도의 현황에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나가야 한다는 답 역시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좋은 싫든 큰 파도는 눈앞에 다가와 있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를 넘을 수밖에 없다. 필자 역시 오랫동안 우리 업계의 대형화·전문화를 외쳐왔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현실적 지지대는 여전히 취약하기만 하다.

둘째, 그렇다면 우리 업계는 제반여건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인식하고 개혁과 변화에 박차를 가하여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지지대를 세워나가야 한다. 스스로 집을 짓고 방파제를 세우지 못한다면 내일 우리가 머물 곳은 없을지도 모른다.

셋째, 기둥과 지지대를 세워나가려면 내부의 각종 제도, 규정,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정비하여야 하고, 외부적으로는 입법투쟁과 홍보전에 모든 힘을 집중하여 경주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책목표를 정하여 우선순위를 매기고 주춧돌을 놓아야 하며 회원 모두의 강력한 의지를 결집시켜 나가야 한다.

넷째, 법무사업계에 강력한 의지와 새로운 바람이 필요하다면, 좀 더 자유로운 사고를 하고 현재와는 다른 생각과 열의를 가진 사람들이 업계의 중심이 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면 무엇인가 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이를 해야 하는 법이다. 믿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이지만 그래도 믿어야 할 것은 사람이고, 시간과 준비가 부족할수록 그런 리더십은 더욱 더 필요해진다. **법무**

우리 업계의 선진화 정도는 다른 단체에 미치지 못하고 대형화·전문화나 자본의 집중 역시 미치지 못한다. 자본의 힘에서 벗어나 조금의 편안함이라도 향유하려면 그나마 어떤 종류의 무기라도 손에 쥐고 있어야 할 텐데 우리가 가진 무기란 과연 무엇일까 궁금하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준비도 시간도 없다”는 궁색한 논리와 생존권의 문제라도 들어 반대의사를 표해 두는 것으로 한다.